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뼈?뼈!> 공개강연

-문화를 읽는 새로운 코드, 고인골-

2015년 5월 6일(수), 오후 2~4시

고인골로 본 가야의 순장 문화

김 수 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이 강연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강연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강연 5분 전까지 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강연 시작 이후부터는 강당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강연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변경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김해박물관 <뼈?뼈!> 공개강연
2015년 5월 6일(수), 오후 2~4시

고인골로 본 가야의 순장 문화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왕들의 상여는 능선 위로 올라갔다. … 비빈(妃嬪)과 소생들, 시녀와 몸종들이 상여에 연결된 흰 무명끈을 붙잡고 울면서 비틀거렸다. …

순장자(殉葬者)들은 울지 않았다. 능선 위에서 순장자들은 신분에 맞는 의관과 장신구를 갖추고 도열해서 두 번 절하고 왕의 상여를 맞았다. …

한번 장사 때마다 십 명 정도의 순장자들이 죽은 왕을 따라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십 명 안에는 신하와 백성들의 여러 종자와 구실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 …

왕의 관이 석실로 내려올 때, 문무의 두 수장 중신들은 흰 수염을 가지런히 하고 눈을 감았다. … 순장자들의 구덩이마다 배치된 군사들이 일제히 돌뚜껑을 들어 올려 구덩이를 덮었다. 구덩이를 덮을 때,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한 줄기도 새어나오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 적막을 죽은 왕의 덕으로 칭송했다. 간혹 구덩이 뚜껑을 덮을 때 흑, 흑 짙은 여자들의 웃음인지 비명인지가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불경하고 요망한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또 돌뚜껑이 덮이는 순간, 뚜껑을 밀치고 구덩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자들도 더러는 있었다. …」

- 김훈의 장편소설 『현의 노래』 중 ‘별’

이 글은 소설가 김훈의 장편 소설 『현의 노래』(2004, 생각의 나무) 중 첫 장인 ‘별’에서 발췌한 것으로, 작가 특유의 감성과 독특한 필치를 통해 고대 왕의 장례식에서 행해진 ‘순장’의 광경을 마치 그곳에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소설은 가야금의 예인(藝人) 우륵의 일생과 가야국의 멸망과정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풀어 쓴 것으로, 대가야 가실왕(嘉悉王)의 죽음에 순장자로 선택된 ‘아라’라는 이름의 시녀가 도망을 치다가 끝내 붙잡혀 제물로 바쳐진다는 이야기가 소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2004년

출간되자마자 단박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이후 『칼의 노래』와 함께 지금도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는 김훈 작가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소설이다.

수려하면서도 절제된 작가의 문장에 필자 역시 연신 감탄을 연발하면서도, 그 내용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바로 ‘순장’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다. 신분의 귀천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순장’이라는 장송의례가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비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10세기 러시아 불가강 중류에서 행해진 루스(Rus)인의 장례식에 여성 노예가 주인과 함께 매장되기를 자원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순장이 고대사회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비추어졌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 본다.

1. 순장(殉葬)이란?

순장(殉葬)은 사전적으로 ‘죽은 권력자를 위해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죽여서 함께 매장하는 장례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타자(他者)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던 절대 권력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권력이 정당화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김수환 2005). 또한 순장의 발생과 확산, 소멸에는 당시의 복잡한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기에 그것의 존재 여부와 양상은 고대 사회의 발전단계를 논하는데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권오영 2001).

순장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권력의 집중이나 국가의 발생을 전후하여 나타나며, 약 5,000년 전부터 중국을 비롯하여 이집트, 스키타이, 로마 등 고대 동서양의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장송의례(葬送儀禮)이다.

순장이 장례제도로써 행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 내에 ①주인과 종속자

간 차별적 계층구조와 지배체계 성립, ②내세관(來世觀)에 의한 묘장제도(墓葬制度) 확립, ③주인의 죽음을 위해 종속자를 강제로 살해하여 매장하는데 대한 사회적 용인이 필요하다(이성준 · 김수환 2011). 한편, 대형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순장의 여부를 확인,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무덤 주인과 순장자가 동시에 매장되었을 것(동시성), ②순장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고착화된 사회적 관념에 의해 강제로 행해졌을 것(강제성), ③무덤주인과 순장자 사이에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인정될 것(종속성) 등 이상의 세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권오영 1992; 김수환 2005).

2. 문헌기록 속의 순장

고대 한반도의 ‘순장’ 과 관련한 문헌기록은 단 2개만이 전해진다.

• 『삼국지(三國志)』위서동이전 부여조

「其死夏月皆用冰, 殺人徇葬多者百數. 厚葬有槨無棺.」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지내며,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이나 된다. 장사를 후하게 지내며, 곱은 사용하나 관은 쓰지 않는다.’

•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 지증마립간(왕) 3년(502)조

「三年春三月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3년 봄 3월에 영을 내려 순장을 금하였다.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다섯 명씩 순장하던 것을 이때에 와서 금한 것이다.’

3. 고대 한반도 순장의 출현과 실제

고대 한반도에서는 영남지역 즉 가야권역과 신라권역의 대형 무덤에서 순장이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고구려와 백제권역의 무덤에서는 아직까지 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확인될 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다. 이는 두 나라가 중국의 선진 사상과 문물을 일찍부터 접하였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영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순장이 확인된 곳은 금관가야(김해)의 대성동고분군으로, 3세기 말의 대성동 29호분을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순장무덤으로 보는 데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고대 한반도의 순장 기원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 하나는 소위 대형 목곽묘의 등장과 도질토기를 비롯한 북방계 유물의 유입과 그 시점을 근거로 ‘북방(부여)의 영향에 의해 직접 도입된 매장습속으로 보는 견해(신경철 1992)’와 다른 하나는 ‘당시 사회 내 전쟁포로의 증가와 생산력의 발전, 인신공희(人身供犧) 관념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자생하였다는 견해(최종규 1995; 홍보식 1998)’이다. 현재적 시점에서 그 진상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영남지역의 순장습속은 무덤이 대형화되고, 다량의 유물이 부장되는 등 엄격한 위계(位階)가 성립되고 권력이 집중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생겨났음은 분명하다.

* 지면관계상 순장의 실제는 강의 PPT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야의 순장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권역의 대형 무덤군에서 확인되고 있다.

- 금관가야(金官加耶) - 김해 대성동고분군(사적 제341호), 양동리고분군(사적 제454호), 동래 복천동고분군(사적 제273호)
- 대가야(大加耶) - 고령 지산동고분군(사적 제79호)

- 아라가야(阿羅加耶) - 함안 말미산고분군(사적 제515호)

신라의 순장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비롯하여 경산, 창녕, 양산, 대구, 성주, 의성, 영덕 등지의 대형 무덤군에서 순장이 확인되고 있다.

- 경주 - 대릉원 일원(황남대총 남·북분, 금관총, 천마총, 금령총, 식리총, 황남동 109호분·110호분, 황오리 14호분, 계림로 14호분 등, 사적 제512호)
- 경산 - 임당동·조영동고분군(사적 제516호)
- 창녕 - 교동·송현동고분군(사적 제514호)
- 양산 - 북정리고분군(사적 제93호)
- 성주 - 성산동고분군(사적 제86호)
- 의성 - 대리리고분군(경상북도기념물 제128호) 등

4. 순장무덤의 주인공과 순장자

고대 한반도 순장무덤의 주인은 왕과 귀족들이다. 장송의례로서 순장을 시행할 수 있었던 귀족들은 각 나라(정치체)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의외로 다양한 규모의 무덤에서 순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최고지배자인 왕 외에도 다양한 신분(계층)의 귀족들도 순장을 시행하였음은 분명하다.

순장자의 신분은 그들이 매장될 때 함께 부장된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손칼이나 낫 등의 도구, 작은 토기 등인데, 한 무덤의 순장자들이라 하더라도 성별과 연령, 소유 유물들이 다양해 동일한 신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한반도의 순장자는 매장의 정중(鄭重)한 정도로 보아 전쟁노예가 포함되지는 않은 듯하며, 무덤주인의 내세를 위해 순장되었음을 고려하면 주인의 시중을 들던 비첩(婢妾)이나 집안에서 노동을 담당하던 시종(侍從)·시녀(侍女)·시동(侍童) 등의 가내 노동자, 주인을 호위하던 무사(侍衛奴)나 마부(馬夫) 등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과 '송현이(복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창녕 송현동 15호분에서 발굴된 16세 여성인 '송현이'는 왼쪽 귀에 금동제의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발굴조사된 김해 대성동 88호분의 여성 순장자 2명은 골제(骨製)의 머리장식(手櫛)을 하고 있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무덤주인의

비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순장자의 인골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면,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순장자와 관련한 정보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성동 23·24·57호분 순장자의 경우, 치아에서 에나멜질 감형성(Enamel hypoplasia)이 관찰되어 유소아 시절 영양공급이 충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성동 12호분의 순장자는 눈썹 위쪽에서 작은 구멍(Cribra Orbitalia)이 관찰되어 후천적인 철분(Fe) 결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성동 24·57호분 성년 여성 순장자들에게서는 출산(임신)의 흔적이 관찰되었다(김수환 2005). 최근에는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자들을 대상으로 생화학적 분석을 한 결과, 그들이 주로 쌀·보리·콩 등을 섭취하였고, 특히 이 중 남성 순장자는 다른 순장자보다 육류의 섭취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순장자의 매장은 그 자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전신인골이 잘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료의 제한이 따른다. 김해 대성동 57호분 순장자들의 경우, 여성 3명이 나란히 매장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로 팔, 다리를 곧게 펴서 몸통에 붙인 상태였다. 이는 금관가야 순장자의 일반적인 매장자세이다. 이에 대해 함안 말이산 8호분 순장자를 비롯한 아라가야 순장자들과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자들은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로 다리는 곧게 펴고, 팔은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자연스럽게 펼친 상태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사망한 직후에 정중히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금관가야 순장자의 경우 시신을 직물로 감거나 묶는 염(殮)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순장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법은 인골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독살(毒殺)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한 상태에서 사후경직(死後硬直)이 오기 전 매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산 임당동 조영 EI-1호분과 임당 북2호분 유물부장곽에 매장된 순장자 중에는 생매장 또는 사망한 후에 던져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독특한 자세의 순장자도 확인되고 있어 매장의 다양성을 보여준다(이성준 · 김수환 2011).

5. 순장의 소멸과 대체

가야와 신라의 순장은 고대국가로서의 체제가 갖추어지기 전(前) 단계에 행해졌던 장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순장은 늦어도 6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 같다. 물론, 가야와 신라의 여러 정치체가 모두 같은 시점에 같은 사유로 순장의 시행을 중지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순장의 소멸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내세관(정신문화)의 변화에 따른 소멸’이다. 즉, 사람을 죽여 사람의 매장에 활용한다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과 회의,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종교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소멸되어 간 것으로 아라가야의 순장이 이에 해당한다(김수환 2010). 다른 하나는 정복자가 피정복 집단의 지배층에 대한 부정과 와해를 목적으로 기존의 장례습속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면서 순장이 급작스럽게 소멸한 경우인데, 신라에 정복당했던 금관가야나 대가야의 그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에서는 순장의 규모나 배치가 가장 발전한 단계에서 갑자기 순장이 중지되고 그 이후로는 이어지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신라의 순장은 지증왕3년(502)에 금지되었는데, 이는 지증왕의 정치적 입장과 유력 귀족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견제책 차원의 금지령이었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깝다.

고대 사회에서 순장의 시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세관에 의한 묘장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무덤 주인에게 봉사할 대상은 여전히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용(甬)’의 부장이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진시황릉의 병마용(兵馬甬)을 들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가 끝나고, 한대가 되면 중국에서는 순장습속이 거의 사라지고 이를 용의 부장으로 대신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신라 경주의 용강동석실분(7세기)과 황성동석실분(8세기)에서 출토된 토용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순장이 금지되고 1~2세기 후의 유물들인데다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순장금지령 이후 과연 순장자를 대신하여 토용을 부장하는 행위가 고대 한반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6. 마무리

고대 한반도 남부에서 순장이 가장 처음 출현한 곳은 가야(금관가야)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순장이 시행된 곳도 가야(대가야)이다. 또한 한반도 최대 규모의 순장이 시행되었던 곳도 가야(대가야)였으며, 순장이 장제로서 제도화되어 계층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시행되었던 곳도 가야(아라가야)였다.

가야 순장의 존속 기간은 3세기 말~6세기 중엽까지 약 250년간이었으며, 이 사이 장례습속으로서의 순장은 정치체들의 다양한 교류 관계 속에서 전파, 수용되어 나갔다. 가야제국의 순장은 장례습속의 공유하는 측면에서 여러 정치체간 동류의식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야제국에서 시행된 순장은 어느 하나의 경향으로 단정 짓기 어려울 정도로 각 정치체마다 독자적으로 변형, 발전시켜나갔으며, 이는 정신문화의 공유와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고대 가야사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終)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뼈?뼈!> 공개강연

- 문화를 읽는 새로운 코드, 고인골 -

- 일시 : 2015.5.6.~5.27. 매주 수, 오후 2~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참가방법 : 현장접수
- 문의 : 055-320-6844~5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5.6.	고인골로 본 가야의 순장 문화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2	5.13.	옛 사람의 얼굴을 복원하다	이원준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연구원	
3	5.20.	뼈에 기록된 식생활	이준정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4	5.27.	고인골 연구	김재현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